

K쇼핑 27일까지 '블랙위크 프로모션'

K쇼핑이 27일까지 '블랙위크 프로모션'을 연다. 가전, 의류, 건강기능식품 등 행사 상품을 10·20·30·50·100만 원 누적 구매 시 각각 10% 해당하는 금액의 신세계상품권을 준다. 행사 상품을 모바일 앱에서 구매 시 20%를 적립금으로 증정한다. KB국민카드도 5만 원 이상 구매 시 10% 청구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정정욱 기자



게임 | '리니지M' '리니지2M' 각각 24, 25일 대규모 업데이트



모바일게임 강자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형제가 대규모 콘텐츠 업데이트로 또 한번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24일 추가되는 '리니지M'의 '기사도'(왼쪽)와 25일 업데이트하는 '리니지2M'의 '크로니클 IV. 피로 맺은 결의'.

콘텐츠 새 단장... '리니지' 형제, 다시 난다

'리니지2M', '피로 맺은 결의' 추가 신서버 오픈·새 직업 '대검' 선보여
형 '리니지M'은 기사도 업그레이드 모바일 MMORPG 주도권 유지 전략

모바일게임 시장을 평정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 형제가 또 한번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M'과 '리니지2M'에 새 콘텐츠를 대거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신작 게임 출시로 경쟁이 치열해진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리니지2M'은 25일 대규모 신규 콘텐츠 '크로니클 IV. 피로 맺은 결의'를

추가한다. 27일 서비스 1주년을 맞는 리니지2M은 매출 순위 1위로 데뷔했고, 이후에도 형 '리니지M'에 이어 2위(이하 구갈플레이 기준)를 유지해왔다. 게임을 시작하고 처음 접하는 '말하는 섬'에는 2672만 4375개의 캐릭터가 거쳐 갔고, 모든 이용자가 모험한 시간을 더하면 30억 2219만 4650시간에 달한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최근 이런 성과에 대해 게이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코믹 콘셉트 광고에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리니지2M의 성공 밑바탕에는 '상아탑의 현자들'부터 '베오라의 유적', '풍요의 시대'까지 '크로니클'이라 불리는 꾸준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었다. 그리고 이번엔 네 번째 대규모 업데이트 '피로 맺은 결의'를 준비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 최근 넷마블이 선보인 '세븐나이츠2'에 밀려 매출 3위(22일 기준)를 기록 중이어서 업데이트를 통해 다시 한번 리니지 형제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엔씨소프트는 신서버 '안타라스'를 오픈한다. 여기에 'TJ's 쿠폰 5종'과 신규 클래스(직업) '대검', 클래스 체인지, 신화 클래스 '라울', 신화 스킬, 신규 월드 던전 '각성의 섬'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검은 연속으로 공격하며 확률적으로 상대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고우 콤보 스킬 '배쉬'를 보유한 신규 클래스이며, '아텐의 통일왕' 라울은 모든 계열의 무기를 주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신화 등급 클래스다. 각성의 섬은 월드 내 10개 서버 이용자들이 모여 경쟁하는 전장이다.

형 '리니지M'도 대규모 신규 콘텐츠를 준비 중이다. 리니지M은 2017년 출시 후 모바일게임 왕좌를 굳게 지키고 있으며, 지난 3분기에는 3주년 업데이트의 힘을 바탕으로 2018년 1분기 이후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엔씨소프트는 24일 게임에 '기사도'를 추가할 예정이다. 기사도는 기사 클래스를 대폭 강화하는 업데이트다. 이용자는 특정 스킬이 적중하면 연계기 또는 강화기가 발동하는 '그랜드 마스터', 사용 즉시 체력(HP)을 회복하고 스텐(기절)을 해제하는 '클리어(마스터)', 대상을 도발하는 '팬텀 블레이드' 등 신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보스가 추가된 '월드 보스', 협력전과 경쟁 모드를 추가한 '시련 던전' 등 기존 콘텐츠도 업데이트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이랜드, 랜섬웨어 공격받아 긴급 휴점 NC백화점·뉴코아아울렛 23곳 점포 영업 중단

이랜드그룹이 22일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오프라인 점포의 긴급 휴점 또는 부분 영업에 들어갔다. 이랜드그룹 측은 "22일 새벽 사내 네트워크 시스템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시스템 일부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이랜드그룹 계열인 NC백화점, 뉴코아아울렛의 점포 50여 곳 중 절반 가까운 23곳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일부 매장만 운영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랜섬웨어는 '몸값'을 의미하는 '랜섬(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해 중요 파일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이랜드그룹은 랜섬웨어 유포 경로 등을 조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코오롱FnC 레코드, 30일까지 팝업스토어 운영

코오롱FnC의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가 30일까지 캘러리아명품관 웨스트 2층에서 팝업스토어(사진)를 운영한다. 레코드의 작업장, 아틀리에를 콘셉트로 했으며 가을·겨울 시즌 컬렉션 구매 시 옷 커버 3종과 함께 이니셜 제작 서비스를 제공한다.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통해 점퍼 재고로 직접 카드 지갑과 에어팟 케이스를 만들면서 업사이클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기회도 제공한다. 팝업스토어 오픈 기념으로 제작한 기획 상품인 소잉 키트도 선보인다.

KB국민은행 '대학생 디지털 서포터즈' 모집

KB국민은행이 29일까지 '대학생 디지털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12월 28일부터 2개월 간 영업점 방문 고객 대상으로 은행의 각종 디지털 서비스를 안내하고 디지털 채널 이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치 전 사전교육을 통해 KB스타뱅킹, 신청서 미리작성 서비스, 바이오인증 등 디지털서비스 활용법을 교육받는다. 은행 업무에 관심이 많고 적극성과 친화력을 갖춘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우수 활동자에게 KB국민은행 신입행원 채용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준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KT, 청년들의 농촌 정착 위해 ICT 인프라 지원

KT는 경상북도, 의성군과 함께 의성군 안계면 이웃 사촌 시범마을 청년들의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를 지원한다. 먼저 자녀 교육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안계초등학교를 '10GiGA AI스쿨'로 꾸몄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10기가 네트워크 기술로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안계면 용기리 마을 공원에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이 적용된 'KT마음쉼터'도 생겼다. 5G기반의 와이파이, 지능형 비상벨, 공기질 플랫폼과 연동된 나노광촉매 공기청정기 등이 갖춰졌다.

SKT, 웨이브에 '5GX 멀티뷰 2.0' 선포

SK텔레콤은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의 멀티뷰에 개별 연주 감상 등 신규 기능을 추가한 '5GX 멀티뷰 2.0'을 23일 선보인다. 가장 큰 변화는 공연 영상 중 특정 연주자의 연주만 들을 수 있는 '멀티오디오' 기능이다. 멀티뷰 화면 중 원하는 화면을 선택해 이를 모아서 보는 화면 자유 구성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다. 연주자의 세세한 연주 기법을 감상할 수 있는 화면 확대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김명근 기자

LGU+, 반려동물 토털 솔루션 '스마트홈 펫케어' 출시

반려동물 전용기기·배상보험 등 혜택

LG유플러스는 'U+스마트홈 펫케어'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다.

월 1만 1000원(VAT 별도, 3년 약정 기준)에 반려동물 전용기기, 반려동물 커뮤니티, 반려동물 배상보험 가입까지 담은 반려동물 케어 토털 솔루션이다. 전용기기는 '원격급식기', '맘카'(CCTV), '간식로봇' 등 3종이다. 새롭게 선보인 원격급식기는 원하는 시간에 어디서나 원격으로 사료를 줄 수 있는 기기다.

LG유플러스는 또 펫케어 서비스 가입 기간 중 1마리에 한해 DB손해보험의 반려



동물 보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커뮤니티와 쇼핑, 호텔 및 돌봄 서비스 등 제휴 혜택도 준다.

김명근 기자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BTS 팝업스토어서 굿즈 사세요' 롯데백화점이 21일 본점 지하 1층에 '방탄소년단(BTS) 공식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다. 티셔츠와 재킷 등 패션 아이템으로 구성된 베이직 테마 상품을 선보였다. 또 'DNA', 'IDOL' 등 방탄소년단의 대표 곡을 테마로 만든 패션, 문구, 장난감도 공개했다. 2021년 2월 28일까지 서울 본점을 비롯 부산 광복점, 대구점, 광주점에서 운영한다. 정정욱 기자, 사진재민 | 롯데백화점

납품업자에 판촉·행사비 떠넘긴 GS리테일...과징금 10억5800만 원

98억 상당 직매입 상품 부당 반품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등 위반

GS리테일의 헬스&뷰티(H&B)스토어 '탈라블라'가 납품업자에 판촉비용과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동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8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2017년 탈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 합병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2016~2017년에는 13개 납품업자와 17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또 38개 납품업자에 2015년과 2016년 헬스·뷰티 시상식 행사비용 명목으로 5억 3000만 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2016~2018년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98억 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2016~2017년에는 76개 납품업자에게 213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김명근 기자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장려금, 반품 등의 비용 전가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